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기획연재
**코로나19,
노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

Special Edition
by ASEM Global Ageing Center

**COVID-19 and Korea's
Responses to Protect
the Elderly**

목차

코로나19, 노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	01
코로나19가 바꾼 노인의 생활 : 고양시정연구원	03
노인의 실질적 삶의 질과 일상 속 권리 보장 : 서울시	07
노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코로나19 대응 :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	12
노인의 일상을 지키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 노인종합복지관	20

Contents

COVID-19 and Korea's Responses to Protect the Elderly	27
Change in the Lives of Older Persons Caused by COVID-19 : Goyang Research Institute	30
Efforts to Protect Quality of Daily Life of Older Person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6
Measures in the Field of Healthcare for Protecting Older Persons' Right to Health : Korean Convalescent Hospital Association (KCHA), Korean Geriatrics Society (KGS)	42
Senior Welfare Centers' COVID-19 Responses to Protect Older Persons' Daily Lives : Senior Welfare Center	55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기획연재

코로나19, 노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

2020년 10월 1일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고취하고 노인의 안녕과 필요에 주목하기 위해 유엔이 1990년에 지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의 30주년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노인의 인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해이기도 하다.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심각하므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의 우선순위에 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어느 때보다 노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용하고 통합적이고 노인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클라우디아 말러도 성명을 발표하여 노인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령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의 위협이 크다는 것은 세계 공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러한 건강의 위협 외에도 보호 및 요양시설에서의 방치와 학대, 돌봄 공백, 실업의 증가, 빈곤, 연령 차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 정서적 건강 악화, 디지털 배제 등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위기 속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고령 인구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에게 연령 차별적인 낙인을 씌워 이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여 노인을 향한 혐오표현을 증가하게 한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또 다른 세계적인 팬데믹이 도래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일 뿐 아니라 노인인권 사각지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적, 경제적 지원 등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안전망과 보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인인권적 관점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팬데믹의 위기는 정부와 지자체 및 개인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노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 내에서 우수 정책과 대응사례 공유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으로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문제 속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아셈 회원국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공유하고자 본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선진적 방역 시스템과 진단키트 개발, 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WHO가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가로 지목하기도 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각 분야에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지자체, 보건의료계, 복지관, 연구기관의 생생한 사례를 아셈 회원국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I. 고양시정연구원

코로나19가 바꾼 노인의 생활

문정화 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장(연구위원)

정리: 백승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 해당 원고는 고양시정연구원 문정화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세계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3월에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한국 역시 2020년 1월 1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고 된 뒤 지역별 집단감염으로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가 방역으로 다시 줄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감염 경로 파악, 감염여부 조사, 정기적인 정보공유와 시민들의 협력으로 코로나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한국 각계각층의 코로나 대응 중에서도 노인에 대한 대응들을 찾아보고 회원국들과 이를 공유하고자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다. 첫번째로 고양시정연구원을 인터뷰하였다.

고양시정연구원은 2017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시민정책, 경제사회, 도시환경 분야 등의 연구를 통해 시민중심의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삶의 질, 50+세대 지원센터 운영 사례,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방안 등 생애주기 차원에서 노인 관련 연구를 설립 초기부터 진행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생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시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2020년 7월에 연구 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센터는 연구공유회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빠른 코로나19 상황 파악: 연구 공유회

2020년 7월, 고양시정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 생활변화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3개 복지관, 고양시청과 함께 연구 공유회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고양시는 1월 26일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이 휴관에 들어갔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줄면서 노인들이 코로나와 관련해 불안감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고양시에 있는 3개 복지관(덕양노인종합복지관,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청,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협조를 얻어 5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정서적, 신체적, 가족 관계의 변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인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전화로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질문 분량이나 설문 대상자를 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맞닥뜨렸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건강한 노인 216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793명이 연구 대상으로 확보되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어려운 과정 끝에 나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 변화를 정서적 변화, 건강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로 나누었다. 먼저 정서적 변화를 살펴보면, 고양시정연구원이 예상했던 것처럼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 감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양시 노인의 비율은 조사대상 중 67.6%, 본인의 감염을 걱정하는 비율은 49.1%, 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세대에 비해 컸다. 특히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높고 여성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고, 몸이 약한 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역시 우울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건강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인 약화로 진료와 경과를 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을 꺼리거나 망설인다는 응답이 69.8%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이 특정 감염병이 장기화 된 상태에서는 대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노인 중 25.6%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관계 변화가 있었고, 이들 중 43.1%는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노인 중 35.5%가 손자녀 돌봄이나 배우자 돌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스트레스나 부담이 늘어났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고양시의 코로나 대응과 노인들의 평가

고양시정연구원은 노인들의 변화 뿐 아니라 고양시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평가도 조사하였다.

고양시는 2월에 공직자와 의료인들로 구성된 ‘민관의료협의체’에서 기모란 교수(감염역학전문가)가 승차진료소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고양시가 빠르게 추진해 4일만에 운영을 시작했고, 경찰과 자원봉사자가 차량 질서 유도에도 함께 해주어 10분 안에 방문객이 문진, 검체 채취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가 익숙한 ‘드라이브 인’, ‘드라이브 스루’ 활동들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또, 보건소 밖에 ‘외부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시민이 보고소에 신고할 경우 구급차가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까지 이송해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킨텍스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거처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킨텍스 주변 호텔들과 일정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고양시가 협약을 맺었다. 생활 면에서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시 옥외 영업도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허용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노인 대체식 지원, 안부확인, 요양시설 상황 일일 검토,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을 지원하였다.

시정연구원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고양시의 전반적인 대응책에 크게 만족하는

편이었다(92.5%). 특히 ‘감염자 동선 파악’과 ‘긴급 방역단 편성 및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관리 정책’은 각각 85.2%, 73.1%의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반면, 좀 더 정확한 정보제공, 건강이나 심리지원, 도시락/반찬 배달 식사 지원, 고립 방지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 경제적 지원 등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대안으로 정리되었다.

위드코로나 시대, 고양시정연구원의 노력

코로나 이전에도 고양시정연구원은 노인 관련 데이터 및 연구를 실시해왔다. 2019년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연구 1기로 ‘중장년의 생활실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정책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축적했다. 또 내년(2021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노인의 활동적 노화정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이후 바뀌게 될 지역 사회 관리 과제나 유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 도시 정책방향, 도시 회복력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사례를 연구 중에 있고, 2021년 과제로 고양시 위기관리 체계 진단과 방향에 대한 연구를 검토 중에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개원 이래로 고양시민들의 현재를 빠르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책에 담고자 하는 연구들을 해왔다. 젊은 기관인만큼 코로나 대응 면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담았다. 또 이 같은 과정을 시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연구 결과가 글자로만 남지 않도록 하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양시정연구원처럼 도시 회복, 대응책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침착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서울시

노인의 실질적 삶의 질과 일상 속 권리 보장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정리: 조산새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 해당 원고는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아셈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단숨에 바꾸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 팬데믹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5천9백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 확진되었고 약 14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는 연령과 성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치명적인 감염률을 보이지만, 그 감염의 영향과 여파는 연령과 성별, 거주지와 지역,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다. 특히 노인은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의 80% 이상이 70세 이상이며, 이는 대부분의 아셈 회원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건강권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노인들의 문제”와 같이 여겨져 노인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령차별, 격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지어는 혐오표현(Boomer Remover) 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코로나19 관련 한국 대응사례와 관련하여,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의 수도이자 인구 약 970만명의 최대도시인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본 사례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약 154만명(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1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 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의 휴관, 돌봄서비스 감소,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등으로 노인이 직면한 일상적 어려움에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여 대응하고 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간접돌봄 서비스 확대

코로나 감염 예방의 목적으로 줄어든 노인돌봄 방문서비스로 인해 돌봄 공백이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한 주2회 이상 유선 안부확인(안부확인 미응답 시 방문확인 실시), 사회적, 정신적 취약 노인(19,463명)의 유선 말벗 및 상담서비스를 매일 진행하여 간접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저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우려되는 노인(2,517명)에게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취약노인(7,500가구)을 대상으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치매의심, 노인성질환 노인에 대한 비대면 실시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IoT 활용 사례**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 플러그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고위험 취약 어르신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서비스 내용	
온도, 습도, 조도, 움직임 이상 시 유선·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전력사용량, 조도변화 확인 동 주민센터 및 생활지원사 조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개소)과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노인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 위탁시설에 대해 재위탁을 제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피해 상담 및 노인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홍보,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수칙 수립

서울시는 노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노인이용시설 등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수칙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감염병 매뉴얼에 따른 비상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계층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실과 시민소통담당관이 공동으로 방역수칙 안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노인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지하철 역사, 자치구 소식지 등에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매뉴얼을 집중 배포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다.

필수품과 방역물품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각 가정을 통해 방역물품을 지급하여 ‘마스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경로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급식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급식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식품을 지원하여,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도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세대 간 공감 증진을 위해 공모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타 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모집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인자치활동, 세대간 공감을 위한 인문학 체험활동, 디지털문화 교실, 노인 스마트기기 교육, 생애사를 담은 그림책 발간 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디지털 교육과정을 신설 및 확대하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는 키오스크, 인터넷 뱅킹, 모바일 쇼핑, 교통앱 등의 활용방법 등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스마트도시담당관이 협업하여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인 맞춤형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 및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강점을 살려, 노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기본권, 건강권, 디지털 접근권, 문화생활권 등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을 위한 최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권리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 설계와 운영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상 속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소통과 교감을 잃지 않도록 기여하고 있다.

III.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

노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코로나19 대응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원장원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

정리: 이영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 해당 원고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대한노인병학회 원장원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대한민국 모든 연령층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은 감염증에 대한 건강의 위협 외에도 빈곤,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배제 등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의 위험에 더욱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 공통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85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이 20대와 비교해 630배 많고, 75~84세는 220배, 65~74세는 90배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가 적은 편이지만, 전체 사망자 중 60세 이상 사망자가 93% 이상(2020년 12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층의 사망 위험이 크며, 치명률 또한 80세 이상이 약 1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 외에도 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 관련 시설들에 대한 엄격한 방역과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병원

이용에 대한 문제 등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노인인권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요양병원 및 노인 관련 의학계 등은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코로나19와 노인인권 관련 한국의 대응사례 기획연재 세번째 시리즈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이 직면한 위기를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노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계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본 글은 대한요양병원협회장과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코로나19 이후 노인이 직면하게 된 보건 위기

〈신체적·정서적 건강 악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도 노쇠 진행을 막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부활동, 운동량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정신, 인지 및 신체기능 감소, 근육량 감소, 염증 수치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과 우울이 악화될 수 있으며, 낙상, 골절,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은 일주일간 신체활동이 없으면 신체 나이가 일 년쯤 증가한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노인인구 집단 전체의 기대 여명이 수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요양병원도 고령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집단감염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외출, 외박이 중단되고 자원봉사자의 지원중단, 대면 면회도 중단되어 이로 인한 가족과의 격리, 고립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나타나고 있고, 치매 환자의 경우 증상 악화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인 방문 간호도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어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

〈노인이 직면한 돌봄 공백〉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가 드러났고,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2020년 10월,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이 돌봄 시스템의 한계와 노인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 부재 등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냈으며, 이에 따른 돌봄 대안의 전면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돌봄을 새롭게 정의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 수당 제도와 같이 비공식 영역의 돌봄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공 인프라 확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노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뿐 아니라 노인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방호복 등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감염의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보호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새로운 돌봄 정책은 노인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고안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 당국과 의료계의 대응

〈노인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91%가 한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세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졌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 시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전화상담·처방 및 보호자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 왕진, 환자 재택관리, 노인 건강주치의, 가정간호, 가정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자택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자택으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를 하는 서비스로, 당초 2019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현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본격 추진 시에는 노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안심면회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및 노인 시설의 면회가 제한됨에 따라 병원마다 병문안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 방문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면서 오랜 기간 가족들과 면회를 하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해 비접촉식 안심면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환자들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화면으로나마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다. 통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환자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동영상 제작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둘째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가족들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안심 면회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심 면회실에서는 보호자의 여행력 조사, 발열 측정, 손 씻기 등 안전수칙을 따른 후 면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접촉을 제한하고 면회가 끝나면 곧바로 면회실 전체 공간을 소독 후 다음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심병원 운영>

요양병원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입원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공간을 구분하고 동선을 달리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간 접촉을 방지하는 안심 외래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출입검사소를 거쳐야 하며, 출입검사가 끝나면 외래 전담 직원이 동행하여 진료를 안내한다. 외래 진료 후에는 진료실 전체 소독을 진행하며, 재활치료 또한 입원환자와 공간을 분리하고 외래재활치료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규 입원환자 특별병동을 신설하여 신규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병실에서 관찰하며,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간은 특별병동에서 체류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의 활발한 대응>

학계에서도 코로나19 시기 노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지난 3월 ‘신종코로나 어르신 건강수칙’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대응 방안’을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AGMR)에도 게재하였다. 학회는 또한 아시아 노인의학자들과 함께 아시아 노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COVID-19 and older people in Asia: Asian Working Group for Sarcopenia calls to actions) 논문을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GGI)에 기고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시아 국가에게는 노인 취약계층의 돌봄을 재설계할 기회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팬데믹 시의 대응 체계를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탄력적인 보건 시스템의 정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고령층이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실제 어르신을 모델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기도 했다.

집단감염에 맞서는 요양병원의 대응

노인이 치료 및 돌봄을 받는 대형병원,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노인 관련 시설들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우수 대응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요양병원 우수 대응사례〉

울산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단 한 명의 추가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의 신속한 신고 이후 이 요양병원은 병원을 즉각 폐쇄 조치하고, 재활치료·외래진료·건강검진 등을 전면 중단했다. 또한 많은 비용과 사안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 모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환자와 병원 전체 종사들에게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였고, 전체 음성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에 안전한 병원임을 입증하였다.

전수검사 이후에도 비대면 안심면회실 및 외래전용 재활치료실 운영 등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였고, 전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동선 관리, 발열 체크 및 건강 상태 보고, 직원봉사단 결성 등 직원들의 결속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다. 이렇듯 기본을 지키는 우수한 대응사례가 널리 공유된다면 집단감염과 같은 걱정스러운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의 대응〉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본부’를 구성하였고,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을 전체 1,480여 개 요양병원에 공지하여 노인의료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협의하여 각종 정책 등을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여러 정책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다. 요양병원 전 종사자 발열 체크 등 일일 건강 상태 관리,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입원환자 면회 제한 조치, 요양병원에 근무 예정인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등을 통해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시대의 노인 보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많은 노인 돌봄과 의료 현장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강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지원하는 ‘IoT·AI 기술을 활용한 통합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장애인과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각종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고, 특히 주·야간보호기관 등이 휴관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통합 돌봄 시범 서비스는 IoT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호흡, 맥박, 활동량 등 움직임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면 접촉이 없이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적절한 의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상황이 확인되면 119 등으로 자동 연결돼 24시간 긴급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정서 케어도 함께 제공되는데, AI 스피커를 통해 노래, 날씨 등의 일상 정보와 개인 복약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AI가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인의 우울증이나 고독감으로 인한 자살 문제도 예방한다.

〈고령 치매 환자를 위한 신기술 활용〉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전화 상담, 온라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비대면으로 확대하여 센터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 독거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AI 돌봄 로봇 ‘효돌이’를 배부하였다. 효돌이는 스마트 토이 로봇으로, 기상, 취침, 식사, 약 복용 시간 알림 등의 생활 관리 기능뿐 아니라, 체조, 음악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악화방지 및 예방, 안부 인사, 말벗, 음성 메시지와 같은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효돌이에 탑재된 센서에 일정 시간 동안 아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결되는 안전 기능이 있으며, 앱을 활용해 가족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면 효돌이가 전달해주는 기능도 있어 노인의 사회적 고감과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뉴노멀(New Normal)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의 취약계층으로 드러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본 인터뷰를 통해 노인의 건강권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계도 팬데믹 속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문진료서비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침, 노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강화를 위한 신기술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인과 가족 대상의 니즈 파악 및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더욱 다양한 맞춤형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일상을 지키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성현주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부장

정리: 김빛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 해당 원고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성현주 부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노인의 일상을 크게 흔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고,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었으며, 사람과의 교류가 확연히 줄어들어 고독과 소외감이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노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이슈로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 여가시설 폐쇄, 돌봄 공백 및 코로나 블루의 확대를 꼽았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된 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들 수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여가복지 제공 기능과 국가 노인복지 정책 실천 역할이 강조되면서, 문화, 교육, 예술, 정보화 분야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인자원봉사, 일자리 등의 사회참여, 무의탁재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등의 다양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이 경험하는 실제 일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노인복지현장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박노숙 현회장이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성헌주 부장이 인터뷰이로 응해주었다.

코로나19 시대, 노인이 마주한 일상의 어려움

코로나19의 확산은 노인에게 여러 어려움과 불평등을 야기했다. 먼저, 노인을 포함한 건강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보이며, 현 팬데믹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둘째, 감염 전파 우려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기존 시설이용과 방문이용이 중심이던 대면형 노인복지 및 돌봄 전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여가·돌봄의 공백과 가정 내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학대 발생 가능성마저 증가했다. 셋째, 정보접근역량 및 환경(인터넷, 스마트기기 등)이 부족했던 노인은 비대면 사회체제로 변하면서 더욱 고립되었다. 일례로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노인은 현장방문을 통한 신청이 줄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단기간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했으며 가구소득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던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등으로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코로나19 시대의 노인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노력

〈차적 사회안전망 기능: 방역물품 및 의식주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과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를 위해 방역안전시설¹을 갖춘 경로식당에서 주 1~2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급식 외 매일 도시락 및 레토르트 식품, 과일, 간식거리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제공하고

¹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한 아크릴가림판 설치, 일일소독, 동시 이용인원 축소 및 대각선 교차 착석이 가능한 시설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구매대란 시기부터 사전에 비축된 마스크를 노인에게 배분하였고, 가구별 손소독제의 보급 등의 개인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보 제공: 전화안부, 방문안부, 문자와 홈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주요 정보제공처이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정보제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먼저 전화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주1~2회 노인에게 전화통화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증상과 예방법 안내 및 안전확인을 지속하고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방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방문서비스 인력이 마스크착용, 손소독, 안면보호캡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시 체온체크, 분무소독기를 사용한 방역, 마스크 제공 등의 보호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 외에도 코로나19상황에 따른 복지관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인 정서건강 지원: 마음방역 프로그램〉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이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우울감과 고독감 등 코로나 블루가 확대되지 않도록 마음방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의 경우 일상에서 소동작활동을 촉진하고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반려식물이나 일일작품활동 키트를 가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직접 만든 완성품은 복지관 홈페이지 내 별도 게시판을 통해 이웃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정서지원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및 동년배와의 직접적인 만남이다. 이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0명 이하 인원제한을 두고 비말이 전파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서비스는 온라인 강좌이다. 에어로빅, 요가, 노래교실, 건강 체조 등 기존의 복지관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복지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마을 축제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해 온 특별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전환한 시도도 있었다. 온라인 특별행사를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유튜브로 중계했으며, 평소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던 노인의 인터뷰를 진행해 이용자 간 소통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선배시민사업 시니어북’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노인의 노하우와 재능, 인생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던 ‘시니어북’ 사업을 온라인 영상물 제작방식을 적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쿠킹’, ‘곤충이야기’, ‘동화구연’, ‘캘리그래피’, ‘서예’ 등 다양한 재능과 노하우를 다른 세대와 공유하고 있다.

〈노인 디지털 접근성 강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활용 교육을 제공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비스 전달체계가 급격히 변화하자 휴대폰 활용 교육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급증했다. 이외에도 SNS 활용 능력 강화 교육, 키오스크 활용 능력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노인은 “어디를 가던 이제 숨을 일 없겠다”, “쓸모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젠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등 교육을 통한 사회적응과 자존감 향상을 보였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은 가정 내 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접근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가구의 인터넷 환경 지원을 위해 지역 인터넷 업체(LG유플러스)와 연계협약을 맺고 가구 내 와이파이 환경을 기존 가격의 1/3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회적응훈련 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개인의 체질량, 운동량, 수면량 등을 체크하고, 결과를 반영해 맞춤형 건강관리 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VR 장비를 통해 여행, 음악감상, 영화, 자연체험 등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션 인식 프로그램(닌텐도 등)을 활용하여 탁구, 볼링, 권투, 사격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 댄스, 스트레칭 등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 연계 활동을 통한 AI 및 IoT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AI 로봇을 활용한 가정 내 말벗, 정보제공이 시도되고 있으며, TV, 전기사용량, 활동감지 등을 제공하는 IoT기기를 활용해 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앱을 통한 노래 배우기, 요가, 스트레칭 체조, 회상 프로그램 등 여가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노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 등 심리적 만족감도 충족시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종합복지관의 대응 방향과 과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차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노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사회적 보호체계 대응매뉴얼 수립과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AI, 웨어러블, IoT 등의 발전하는 산업기술이 보호체계 현장의 필요를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체계(대면중심)와의 접목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역량 및 환경(인터넷, 스마트기기 등) 구축을 위한 예산확충과 정책마련 등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소득보장을 분리해 안정적인 경제기반 위에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돌봄 등의 전달체계 주요 인력의 디지털 접근역량과 인권보호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건의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도록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인종합복지관 차원〉

노인과 가장 밀접히 만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세대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접근환경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구 내 인터넷 접근성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언택트 문화에 대한 노인세대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50대 이하가 유튜브나 SNS의 소통매체, AI, VR 등의 디지털 스마트장비 주 이용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보접근성이 향상된다면 노인층도 온라인 소통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우리 사회의 온라인 환경도 노인에게 보다 쉽고 접근성이 향상된 플랫폼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셋째, 노인종합복지관은 마을 중심 소통, 공동체성 및 시민의식 강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비대면 상황의 지속은 세대 간의 불통과 노인세대의 고립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이며, 온라인 상의 만남이 오프라인상의 세대 간 접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산업과 사회변화를 결합한 다양한 시도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노인복지현장의 어떤 변화가 정당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개발 시장의 흐름을 사회복지현장에 맞춤형으로 이끌 수 있으며, 나아가 정책 제안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소외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되었던 환경을 되돌아보게 했으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상을 성찰하게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을 구축하는 시기로 작용해야 한다. 노인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 민간 등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협력이 늘어나길 희망하며, 다시금 노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뉴노멀 시대를 기대한다.

Special Edition by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COVID-19 and Korea's Responses to Protect the Elderly

October 1st, 2020, marke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UNIDOP), which was designated by the UN in 1990 to increase international interests in issues related to older persons. In particular, it intended to emphasize the welfare and needs of older persons while going through rapid global population ageing. Paradoxically, 2020 has been the year when the human rights of numerous older persons' were put at severe risk due to the unprecedented global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n this day, António Guterre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 pointed out that countries should implement policies to handle the COVID-19 pandemic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the pandemic has more considerable implications on older persons. He also emphasized that older persons should be prioritized when putting measures in place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society that integrates and is friendly towards older persons by respecting their voices and opinions. Claudia Mahler, the UN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stressed that older persons still remain chronically invisible in our society, ev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such, she urged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make effort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in the current context. Such increasing attention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international society reflects the significant and serious risks that older persons have encountered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en globally observed that older persons are more prone to suffering from serious diseases, as well as a higher mortality rate, as a result of COVID-19. Aside from such health risks, they have been confronted with a great number of economic and social threats such as negligence and abuse at care and protection facilities, absence of care services, increasing unemployment, poverty, ageist measures on social distancing and lockdown, emotional health aggravation, and digital exclusion. Although older persons are more vulnerable to the various risks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ir social status has been threatened by other serious social issues. For example, an ageist stigma has been attached to them without considering their diversity or their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is international crisis. Moreover,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have led to a rise in the number of hate speech incidences against older persons. It is obvious that these social issues will worsen as the COVID-19 pandemic becomes prolonged, and that the current system cannot continue to be flexibly operated should another global pandemic occur.

The COVID-19 pandemic has created a global crisis in terms of public healthcare and revealed blind spots in terms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Under such conditions, instant and short-term measures, such as medical and economic support, have been developed to protect older persons. However, long-term measure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should also be designed. In this regard, this context should be taken as an opportunity to examine and enhance social safety nets and public healthcare systems, a process that should includ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s well. The COVID-19 crisis can only be overcome through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efforts by nation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s. As this issue is global,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also be a priority, particularly through the exchange of data and exemplary policies and actions.

As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specializing in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has published an interview-based special edition on "COVID-19 and Korea's Responses to Protect the Elderly" to increase awareness and push for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Despite the conditions of economic and social turmoil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ASEM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exchange ideas on measures for promoting and protecting these rights during this unprecedented global crisis.

This special edition introduces actions taken in South Korea, which was selected as an exemplary country in terms of cop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its accomplishments in establishing an advanced system for preventing epidemics, developing COVID-19 diagnosis kits, and applying new technologies. South Korea has also provided various economic and emotional support measures for older persons and given enormous effort into preventing them from being isolate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rough this special edition, the AGAC aims to pres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healthcare sectors,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ers, an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which have actively protecte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aim is to share this with ASEM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seek solutions that can protect and enhanc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post-COVID-19 era.

I. Goyang Research Institute

Change in the Lives of Older Persons Caused by COVID-19

Interviewee: **Jeonghwa Moon**, Director and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Goyang Research Institute

Edited: **Seung-min Baek**, Researcher at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 This article was reconstructed based on an interview with Jeonghwa Moon, Research Fellow at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s a global pandemic in March 2020, nearly three months after the world's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that was detected in Wuhan, Hubei Province, China in December 2019. In Korea, after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was reported on January 19, 2020,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has been fluctuating, increasing due to regional mass infection, and then, reducing due to quarantine. However, Korea is striving hard to contain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infection tracking, investigation of infection, periodic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citizens. Against this backdrop, the AGAC planned an interview series to identify responses for older persons among the various COVID-19 responses from all walks of life in Korea and to share them with ASEM partners. The first series introduces the responses of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is a policy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in 2017. It conducts various researches on civic policy, economic society, and urban environment to discover and realize policies that can create a citizen-centered “good city”. Since its inception,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older persons in terms of the life cycle, such as quality of life, a case report on the operation of support centers for 50+ generation, and plans to establish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It determined that understanding the life change of older persons is important even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held a research sharing conference in July 2020 in cooperation with municipal institutions.

Identification of COVID-19 Situation: Research Sharing Conference

In July 2020,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held an online research sharing conference with three senior welfare centers and Goyang City under the theme of “Changes in older persons’ liv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countermeasures”. After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in Goyang City on January 26, senior welfare centers and senior citizen centers were closed.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expected that the sharp decline in social activities will increase anxiety among older persons regarding COVID-19. Thus, in May, it began the study of “Changes in older persons’ liv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countermeasures” in collaboration with three senior welfare centers in Goyang City (Deokyang, Daehwa, and Ilsan senior welfare centers), Goyang City, and Goyang Mental Health Center.

Emotional and Physical Changes and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of Older Persons due to COVID-19

During the course of the study, it was not easy to hear the stories of the older persons affected by the COVID-19 situation. As the survey was telephonic, determining the number of questions or whom to be surveyed was difficult. Fortunately, 216 healthy older persons and 793 older persons who receiv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ere secured for the study.

Goyang Research Institute divided the major changes in the life of older person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nto emotional changes, changes in health, and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First, when examining emotional changes, as predicted by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older persons had a high emotional fear of infection. Among the survey subjects in Goyang City, the proportion who thought their family will be infected was 67.6%, while 49.1% were worried about their own infection, and 66.2% thought they could die from COVID-19 infection. The fear felt by older persons was greater than that in other generations. Especially, among older persons, higher age and women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fear, and older persons with a weak body (receiving ‘customized care service’) showed increased depression. This confirmed that how to manage the psychological part should be reflected in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It was found th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health of older persons. In the case of older persons, 69.8%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reluctant or hesitant to visit the hospital due to COVID-19, even though they often need continuous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treatment and review of progress due to physical weakness. In a temporary situation, this aspect is not a great problem, but when a specific infectious disease has been as widespread and prolonged as

COVID-19 currently is, special focus is needed on the health care requirements of older persons.

Lastly, of the older persons in this survey, 25.6% said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family relationship due to COVID-19, of which 43.1% said that it had worsened. 35.5% of all older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dicated that caring for grandchildren or spouses has increased, suggesting that the stress and burden in the family may have increased accordingly.

Goyang City's Response to COVID-19 and Evaluation of Older Persons

Goyang Research Institute examined not only changes in older persons but also Goyang City's responses to COVID-19.

In February, Professor Mo-lan Kee, an infectious epidemiology expert of a "public-private medical consultative body" comprising public officials and medical personnel in Goyang Cit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drive-through testing centers. Goyang City quickly implemented this and started operation in four days. The police and volunteers guided the vehicles in order, allowing the visitors to complete a questionnaire and have their samples collected within 10 minutes. The "drive-in" and "drive-through" COVID-19 testing with which we are familiar commenced here. Besides, a system that minimizes contact with many people was established by installing an "external test center" outside the health center to enable visitor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through a video call or an ambulance to transport a suspected patient to the test center when a citizen reports to the reporting center. In the case of overseas visitors, Goyang City has signed an agreement with hotels around the

KINTEX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at a discounted price so that they can move from the airport to the KINTEX test center and wait at a temporary residence until the test results are obtained. In terms of living, Goyang City allowed temporary outdoor business for self-employed people such as restaurants and bakery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after the COVID-19 outbreak. For older persons, it provided support for replacement meals, safety confirmation, daily review of nursing facility condition as well as offered face masks and hand sanitizers.

The older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by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overall countermeasures of Goyang City (92.5%). In particular, "Identifying the path of the infected person" and "Policy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emergency quarantine group and thoroughly managing multi-use facilities" had a high satisfaction of 85.2% and 73.1%, respectively. By contrast, provision of more accurate information, health or psychological support, lunchbox/side dish delivery meal support, reinforcement of digital accessibility to prevent isolation, and financial support were pointed out as shortcomings and summarized as alternatives to be reflected in future policies.

Efforts of Goyang Research Institute in the era of with-COVID-19

Goyang Research Institute has conducted researches related to older persons even before the COVID-19 outbreak. In 2019, it conducted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middle-aged" as the first phase of active aging policy research. In 2020, the Institute carried out a "study on active aging policy for

healthy older persons” and accumulated the related data. Further, next year (2021), it plans to examine “active aging policy for weak older persons in need of care”.

However,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nges in older persons in the era of COVID-19 implies that preventive measures, urban policy direction, and urban resilience to cope with community management tasks that will change in the future, are likely to be the main topics. In this context,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is examining online platform-use cases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and reviewing the study on the diagnosis and direction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in Goyang as a project for 2021.

Since its establishment,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to quickly grasp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esidents of Goyang and overcome policy deficiencies. As it is a young organization, it realistically contained the needs of its residents in terms of COVID-19 response. In addition, through this process, it cooperated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city and shared the results so that the research results did not merely remain as academic records. Although the world is talking about a negative economic outlook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one may be able to calmly prepare for the future if one plans for urban recovery and implements countermeasures as those undertaken by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II.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fforts to Protect Quality of Daily Life of Older Persons

Interviewee: **Sunsoon Kim**, Director of Welfare Polic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dited: **Sansae Cho**, Researcher at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 This article was reconstructed based on an interview with Sunsoon Kim, Director of Welfare Policy Office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has rapidly changed daily lives not only in ASEM partners but also around the world in 2020.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pproximately 59 million people had been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COVID-19, and nearly 1.4 million people had died globally as of the end of November 2020. COVID-19 has a fatal infection rate regardless of age, sex, and region, although the effects and the ripple effects of the infection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age and gender, residence and region,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status. In particular, older persons have been most severely affected by COVID-19.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those over 70 years old account for more than 80% of deaths due to COVID-19, and this is also true of most ASEM partners. Therefore, older persons' right to health has been threatened and COVID-19 has been regarded as “the problem of older persons,” thereby amplifying the existing negative image of older persons, age

discrimination, social isolation due to quarantine, and even expression of hate speech against older persons such as “Boomer Remover”.

As a second series of the AGAC's report on “COVID-19 and Korea's Responses to Protect the Elderly”, this article introduces policies and respons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is a local government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and the largest city with a population of about 9.7 million. The population of older persons in Seoul is approximately 1.54 million (as of the end of September 2020), accounting for about 16% of the city's total popula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inafter “Seoul”) has responded to daily difficulties faced by older persons due to COVID-19, including the reduction of jobs and income for older persons, the closure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such as welfare centers for older persons, reduction in care services, social isolation and depression called Coronavirus Blues, by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Expansion of Indirect Care Services to Minimize the Care Deficit

To avoid a lack of care services o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care blind spot because of a reduction in caring visit services for older person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Seoul is operating the “personalized care service for older persons” which provides calling services to ensure older persons' well-being (visit confirmation is carried out when there is no response to the calls) more than twice a week as well as daily calling services for companionship and counseling for older persons who are socially and mentally vulnerable (19,463 people). Accordingly, Seoul has been expanding the provision of indirect care

services, while continuing to provide direct services for daily life support to older persons who are concerned about health care due to underlying diseases (2,517 people). Also, for high risk and vulnerable older persons (7,500 households) such as those with high suicide risk, suspected dementia, and older persons with geriatric diseases, Seoul provides non-face-to-face, real-time health care services by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devices.

*Major IoT use cases

Safety Management Solution	Smart Plug
	
Target of support	
High risk and vulnerable seniors who are eligible for “personalized care service for older persons”	Seniors living alone who need safety confirmation
Service contents	
Phone call/visit check in case of abnormal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nce, and motion is detected	Regular check on changes in power consumption and illumination level, and measures taken by community centers and life support workers in case of necessity

Efforts to Prevent Abuse of Older Persons in the Post-COVID-19 Era

In the post-COVID-19 era, to protect the rights of older persons, Seoul prioritizes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its policy for the elderly. It operates specialized institutions (3 locations) that carry out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abuse of older persons and a shelter (1 location) exclusively for older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abuse. Seoul also has introduced an “ombudsman for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which restricts re-contract with the municipal contracted facility where elder abuse was uncovered. Furthermore, Seoul carries out a consultation on abuse damage, conducts awareness-raising, and operates education on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rough an institution specialized in protecting older persons. In this respect, Seoul has been striving to establish a well-organized abuse prevention system for older persons.

Establishment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Response Rules for Older Persons

Living and utility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have been encountering a greater risk of group infection. Thu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among older persons, Seoul has been responding according to systematic, step-by-step quarantine rules by controlling access of outsiders, establishing a response plan for each stage of quarantine rules, and conducting emergency quarantine and disinfection as per the manual for infectious diseases. Besides, the Office of Welfare Policy for Older Persons and the Citizen Communication Divis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been jointly promoting the awareness of quarantine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rules among older persons

who do not use the abovementioned facilities. By distributing quarantine rules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anuals to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subway stations, and community centers that are highly accessible to older persons as well as disseminating community newsletters, Seoul has been responding to guarantee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of older persons.

Support for Necessities and Quarantine Supplies

Seoul has provid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supplies through welfare facilities and households for older persons who have difficulty in purchasing PPE items such as face masks. Also, as the meal services for older persons provided in welfare centers and facilities were suspended due to the prolonged period of COVID-19, Seoul has been providing replacement food and necessities for older persons so that there is no deficiency in meal service support for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this respect, Seoul has been striving to practically meet the daily needs of older persons.

Promoting Generational Solidarity amid COVID-19

To change the negative perception toward older persons, which has become important in the era of COVID-19, Seoul has been collaborating with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by supporting programs that help increase understanding and strengthen solidarity among generations. Consequent to the collection of the program applications, five projects have been selected and are underway in 2020. The selected projects include senior citizens' self-activities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the class for humanities for all generations,

digital culture class, smart device education program for older persons, and publication of picture books containing the life history of the elderly.

Bridging the Digital Divide

Regarding digital literacy,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present contactless era caused by COVID-19, Seoul has been providing education to enhance the digital capabilities of older persons by establishing and expanding digital education courses at welfare centers for older persons and senior citizens' center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of older persons by supporting customized education, such as how to use kiosks, internet banking, mobile shopping, and transportation application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and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daily lives.

Moreover, Seoul's Welfare Policy Office and the Smart City Division have been collaborating since October of this year to strengthen digital accessibility for older persons by implementing projects that distribute smartphones customized for older persons.

Seoul is playing a leading role and is committed to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ultural life—of older pers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through systematic policy design and operation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blind spots in various areas of rights, Seoul is contributing to protecting older persons'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emotional communication, and rapport in their daily lives amid the COVID-19 pandemic.

III. Korean Convalescent Hospital Association (KCHA), Korean Geriatrics Society (KGS)

Measures in the Field of Healthcare for Protecting Older Persons' Right to Health

Interviewees: **Dukhyun Son**, President, Korean Convalescent Hospital Association (KCHA)
and **Changwon Won**, Chairman of the Board, Korean Geriatrics Society (KGS)
Edited: **Youngmi Lee**, Researcher at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 This article was reconstructed based on interviews with Dukhyun Son, President of the Korean Convalescent Hospital Association (KCHA) and Changwon Won,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KGS).

The unprecedented outbreak and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as been affecting the lives of Koreans of all ages. However, given that vulnerable groups, including older persons, are more at risk in terms of health threat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poverty, social isolation, and digital exclusion, special care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m.

It has been globally observed that older persons and those who suffer from underlying diseases are exposed to more serious illnesses and higher mortality

rates as a result of COVID-19.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in the US also reported that the fatality rate of confirmed cases of COVID-19 for those aged 85 years and older was 630 times higher than for those in their 20s; the risk for those aged between 75 and 84 years was 220 times higher; and for those aged between 65 and 74 years, it was 90 times higher. In South Korea, the death toll has been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OVID-19. However, those aged 60 years and older accounted for more than 93% of the entire death toll as of December 2020, thereby implying a high mortality risk for older persons. The fatality rate of those aged 80 years and older also reached approximately 17%, which is also comparatively high.

Under these circumstances, increased attention has been paid to measures that can ensure the right to health and healthcare access for older persons; providing strict preventive measures and management mechanisms in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such as hospitals and nursing homes, which are more vulnerable to mass infection, have also been a priority. Moreover,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should be protected in terms of healthcare issues such as the absence of care for older persons due to COVID-19, and the use of hospitals by older persons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or dementia. To satisfy such needs, geriatric hospitals and medical circles related to older persons have developed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ir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Accordingly, the AGAC, in its third series of "COVID-19 and Korea's Responses to Protect the Elderly", examines the risks encountered by older person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care, and presents the actions taken in medical circles to protect and enhance their right to health. The contents of this series were re-organized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president of the KCHA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GS.

Public Health Risks Encountered by Older Persons after the COVID-19 Outbreak

〈Aggrava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Health conditions of older persons have been worsen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 aging process of older persons is unlikely to be prevented, regular exercise serves to better their mental health and decrease the risk of physical problems. For this reason, a decrease in the number of outdoor activities, the amount of exercise, and social interactions caused by social distancing can reduce mental,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s and increase the level of inflammation in them. It can also increase the level of chronic diseases and depression, as well as lower functions that could cause falling and fracture accidents. A previous study reported that the physical age of older persons increased by approximately a year when they did not perform physical activities for a week. Based on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ife expectancy of older persons can decrease by several years due to the measures taken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n geriatric hospitals, a high-risk group of older persons suffering from underlying diseases has been provided with medical treatment. Concerns for them have been increasing as they are prone to infection and a rising rate of mass infection might also increase the death rate of these patients. In addi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y have suffered from depression due to restrictions on visiting and being outside, suspension of support from volunteers, and isolation and quarantine from families caused by limited face-to-face visit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Cases of dementia patients experiencing aggravation of symptoms have also been observed in the field. Furthermore, blind spots for medical and welfare have been increasing since home-visit nursing care, a type of welfare service provided to vulnerable groups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temporarily suspended because of the pandemic.

〈Absence of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

As blind spots in care services of older persons have been fou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need to enhance the public supply of care services is being emphasized.

The National Assembly held a debate on increasing the public supply of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October 2020. This debate clearly presented the vulnerability of older persons in terms of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are system and the absence of systematic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s in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Based on these problem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care system should be comprehensively examined. To this end, it was emphasized that the public infrastructure of thes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diverse approaches including a change in the definition of 'care service' and preparation of reward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informal care, such as a family caregiver allowance.

Moreover, the labor conditions of those who work in the field of caring, such as care workers, should be improved to overcom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 As well as older persons, care workers have been confronted with several threat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It has been reported that a large number of workers in the field of caring have performed

their tasks in the face of infectious risks without appropriate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face masks, hand sanitizers, and protective clothing. As the importance of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rise in the post-COVID-19 era, new policies on these services should be design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both older persons and those who work in the field of care.

Measures Taken by Public Health Authorities and Academia for Protecting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asures to Ensure Older Persons' Right to Access Healthcare〉

The KGS indicates that 91% of older persons in South Korea suffer from more than one minor or major chronic disease and that more than half of them have three chronic diseases or more. As shown in these statistics, special care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 constant spread of the pandemic has made it difficult for older persons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or dementia to visit hospitals. Accordingly, various countermeasures have been employed to solve such problems.

The government temporarily allowed counseling and providing prescriptions via phone calls and proxy access when a doctor finds these actions safe based on his or her medical experience, in order to prevent infections when visiting a medical institute. Moreover, the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a 'community care' designed to provide social services with a focus on homes and local communities since its inaugur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ystem, diverse policies on providing home-based medical care services, such as house calls, patient care at home, visits of home doctors caring for the health of

older persons, home-based nursing, and home-based hospice care, have been underway.

Geriatric hospitals are also planning to execute a service for visiting and providing medical treatments to patients who are discharged from hospitals. This service was designed to enable medical teams in geriatric hospitals to constantly provide medical care for patients discharged from these hospitals and planned to be implemented as a pilot project from the end of 2019. However, it has not been practically implement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service, once it is initiated, is anticipated to diversify visiting services of medical treatments for older persons.

〈Safe Meeting Services for Old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s visits to geriatric hospitals and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have been restricted, these institutes have provided safe meeting services to suppor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Geriatric hospitals have begun providing contactless meeting opportunities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o have not been allowed to meet each other for a long time because of partially or fully restricted visit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First, patients are allowed to make video calls with their families and communicate with them on screen. Medical staff can thus also explain patients' health conditions to their families. When video calls cannot be made, medical staff and patients record videos together to explain patients' conditions and send these videos to their families.

Second, an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s are managing safe meeting rooms that enabl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o look at and talk to each other through screens that are installed to separate them. In these rooms, families are

allowed to meet patients after they complete safety regulations on reporting travel histories, measuring temperature, and washing hands. When a meeting between a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is finished, the entire space is sterilized immediately before the following meeting.

〈Operation of Safe Hospitals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Geriatric hospitals have derived various measures for relieving the anxiety of existing patients. Some hospitals are operating 'safe out-patient consultation rooms' to separate out-patients from in-patients to prevent contact between them. People that enter or leave these hospitals also go through screening facilities to check their temperature, respiratory symptoms, and ensure that facial masks are worn. As soon as an out-patient completes entry screening, the staff member that is responsible for their care accompanies and helps him or her receive medical treatment. The entire space of a 'safe out-patient consultation room' is sterilized after the out-patient finishes a medical check. As for rehabilitation treatments, these hospitals are also separating spaces for out-patients from those for in-patients and managing medical staffs responsible for out-patients. Furthermore, these hospitals have established special wards for newly registered in-patients. A new in-patient must take a COVID-19 test and is observed in a special ward until the test result comes out. Although the patient is confirmed to be negative, he or she should stay in the special ward for two weeks.

〈Vigorous Actions from Academia〉

Academia has also put in great effort to analyze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rough their research, they

are able to propose solutions. In March 2020, the KGS presented the 'guidelines for protecting the health of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ose on 'actions of geriatric hospitals and nursing facilities' and uploaded them on its official website. It also published these guidelines on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AGMR)*, an English journal of the KGS. The KGS also proposed a research paper ("COVID-19 and older people in Asia: Asian Working Group for Sarcopenia calls to actions") on actions for older persons against COVID-19 in cooperation with medical scientists working in the fields in Asia and published it in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GGI)*. Through this paper, it stresses that the COVID-19 pandemic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truct care systems for vulnerable older persons in Asian countries and that measures should be employed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flexible public health care systems, as well as systems for coping with the pandemic for older persons in different conditions.

The Korean Frailty and Aging Cohort Study (KFACS) created and shared a Youtube video in which older persons participated as models to help other older persons do exercise indoors, given that outdoor activities have been restricted.

Measures Taken at Geriatric Hospitals to Protect against Mass Infection

It has been found that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such as large hospitals, geriatric hospitals, and nursing homes, which provide medical treatments and care services, are prone to mass infection. Hence, solutions for such issues and exemplary actions have been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Exemplary Actions by Geriatric Hospitals〉

A geriatric hospital in Ulsan has successfully prevent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through swift and responsible actions since a confirmed case was found in the hospital. As soon as the first case was confirmed, the hospital closed and suspended all the rehabilitation treatments, medical checks for out-patients, and physical examinations. It also conducted comprehensive COVID-19 tests on its entire workforce, patients, and workers from affiliates to minimize the anxiety of patients, their families, and workers despite the great amount of money required for tests and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As all these tests were confirmed to be negative, the hospital was able to declare itself safe and free from COVID-19.

Since the execution of the COVID-19 tests, various measures have also been adopted to help patients and their families feel relieved. One such measure is the operation of safe contactless meeting rooms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rooms for out-patients. Efforts have also been put into overcoming the risk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cohesion between workers who have taken actions like wearing masks, managing hygiene conditions, checking temperatures, reporting health conditions, and forming a volunteer group. It is expected that concerns on serious situations such as the occurrence of a mass

infection can be reduced through the wide-scale introduction of exemplary actions for cop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with basic principles followed, as shown in the case of the aforementioned hospital.

〈Actions by the KCHA〉

Since the occurrence of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in South Korea, the KCHA has established a team for supporting actions of geriatric hospital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and produced and distributed manuals on actions of geriatric hospitals. It has also notified 1,480 geriatric hospitals in South Korea of several guidelines on controlling the infection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in these facilities in which a great number of older persons stay. Furthermore, it has proposed and encouraged policy reform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DSCHQ) and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Geriatric hospitals' policies for overcoming the COVID-19 pandemic include measures to block infection from external channels. Mass infections in geriatric hospitals, which are facilities that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virus, have been controlled through different measures that manage the daily health conditions of the entire workforce, restrict visitor access, control visits to in-patients, and make COVID-19 diagnosis tests mandatory for caregivers who are to work in these hospitals and patients who are to be admitted in these hospitals.

Protecting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sing Advanced Technologies

Various contactless services based on advanced technologies should be adopted in the fields related to caring and medical practices for older person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Enhancement of Contactless Care Services for Preventing Absence of Care for Vulnerable Groups〉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KODDI) has conclud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and provided a pilot service for 'comprehensive care based on Internet of Things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o strengthen the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disabled and older persons.

Groups that are vulnerable, including the disabled and older person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numerous threats due to the prolonged spread of COVID-19. Particularly, the closure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has led to an absence of care services for these groups and a failure to cope with emergencies. This 'comprehensive care service' facilitates contactless monitoring of patients' movements such as breathing, pulses, and amount of activities dete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IoT-based sensors. Thus, medical teams can check health conditions of patients, quickly identify problematic situations,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such as supplying medical treatments. When an emergency situation is confirmed, a call to the numbers of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119 is automatically made to provide emergency rescue for patients 24 hours a day.

The service also provides emotional care for vulnerable groups based on AI technologies. Through AI speaker, they can receive daily information such as music and weather, as well as notifications on individual medicine to be taken. Also, big data collected by AI devices are analyzed to prevent older persons from suffering from depression or committing suicid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Old Patients Suffering from Dementia〉

A number of measures have also been designed for dementia patients who may face more difficultie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COVID-19 pandemic. Dementia safety centers have increased contactless dementia care services, such as counseling via phone calls and the operation of online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to vitalize the supply of dementia care services that have been limit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se centers have also developed new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contactless measures. Some of them have distributed AI care robots called “Hyodol-I” to support dementia patients who live alon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yodol-I is a smart toy robot equipped with various functions, including those for managing daily activities through notifications for time for waking up, sleeping, eating, and taking medicine, those for preventing occurrence and aggravation of dementia through exercise and music programs, and those for supporting mental stability through greeting, communication, and voice messages. When a sensor included in Hyodol-I does not detect any movement from a dementia patient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 safety function is activated to automatically call the patient's family or the manager of the robot.

Moreover, when the family sends a voice message via an app, Hyodol-I transfers it to the patient. This function supports older persons to socially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and lower their sense of isolation.

People and organizations of all social standings have made efforts to implement measures for the “new normal” under the prolonged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Particularly, different methods are required to protect older persons who are considered vulnerable to the COVID-19 pandemic. As indicated in interviews with the KCHA and the KGS, healthcare sectors have protected older persons' right to health through measur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online health promotion programs, the supply of numerous services for visiting and providing medical treatments to older persons, the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on safely operating hospitals, and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enhancing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older persons.

Furthermore, the needs and demands of older persons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investigated to develop more customized measures for cop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and ultimately protect and strengthen older persons' right to health, which will be emphasized more significantly during the post-COVID-19 era.

IV. Senior Welfare Center

Senior Welfare Centers' COVID-19 Responses to Protect Older Persons' Daily Lives

Interviewee: **Hunju Seong**, Manager, Mok-Dong Silver Welfare-Culture Center

Edited: **Bitna Kim**, Researcher at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 This article was reconstructed based on an interview with Hunju Seong, Manager of Mok-Dong Silver Welfare-Culture Center.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as significantly shaken the daily lives of older persons in South Korea. Due to the spread of social distancing, the employment programs for older persons have been suspended and the use of welfare facilities has been restricted. Also, interaction with people has decreased markedly and a significant number of older persons experience increased feeling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In the report of "Older Adults and COVID-19: Status and Implications",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tates that economic changes, closure of leisure facilities, care deficit and expansion of Coronavirus Blues are the major problems experienced by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Senior Welfare Centers in Korea are the leisure-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prescribed by the Welfare of the Aged Act and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daily lives of older persons. As the major agency of providing leisure-welfare services and implementing the national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the Centers provid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n the fields of culture, education, art and information as well as community protection services and encourage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through elderly volunteering and senior employ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AGAC interviewed the Senior Welfare Center to explore the actual changes in the daily lives experienced by older person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examined the responses from the Senior Welfare Centers. Hunju Seong, who is the manager of Mok-Dong Silver Welfare-Culture Center, where the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Senior Welfare Centers, Nohsuk Park currently serves as a director, agreed to the interview.

Daily Difficulties Faced by Older Persons in the Age of COVID-19

The spread of COVID-19 has caused many difficulties and inequality among older persons. First, the group vulnerable to physical health issues has a higher COVID-19 mortality rate than other groups and is extremely apprehensive of the current pandemic. Seco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face-to-face welfare and care delivery system for older persons were exposed after various services were discontinued due to concerns about the infection. As a result, the likelihood of abuse escalated due to the care deficit and increased burden of family caregivers. Third, older persons who lack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per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 devices) became more isolated as the society has been rapidly transforming

into a non-face-to-face based system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For example, despite the availability of an online application for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a significant number of older persons physically visited the related institutions to apply for the relief funds. Lastly, some older persons encounter economic difficulties after the suspension of senior employment support programs that we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s those programs served as a supplement to their household income.

Efforts of the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Age of COVID-19

〈Primary Social Safety Net Function〉

In order to prevent COVID-19 and support the stable lives of older persons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e Senior Welfare Centers have been providing quarantine supplies and basic necessities to older persons. Toward this end, the Centers have been providing meal service once or twice a week at a restaurant for older persons equipped with a quarantine safety facility¹. In addition to on-site meals, the Centers also have been offering alternative meals consisting of daily lunch boxes, retort foods, fruits and snacks. Moreover, the Centers provided face masks and other individual quarantine items to older persons since the face mask shortage in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outbreak.

¹ The facility which installed the acrylic screens to comply with social distancing rule and conducts daily disinfection, etc.

〈Provision of Necessary Information on COVID-19〉

The Senior Welfare Centers are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for older persons to receive welfare services and community information. The Centers provide various non-face-to-face information provision services to perform this function even in the era of COVID-19. First, the Centers conduct “Calling Service for Wellness Checks” to older persons once or twice a week and continuously provide information on symptoms and prevention of COVID-19. The Centers also carry out the “Visiting Service for Wellness Checks” for older persons who need special care services. Following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guideline, on-site professional caregivers wear safety equipment such as masks and face protection caps, and provide care services only after sanitizing their hands. The caregivers also convey protection services such as body temperature check and house quarantine, and give face masks during their visit. Lastly, in addition to national emergency text messages, the Centers send regular messages containing information on how to use Senior Welfare Centers according to the COVID-19 situation and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through text messages and websites.

〈Support for Older Persons' Emotional Health〉

Due to continued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an increasing number of older persons are unable to visit the Senior Welfare Centers and experience disconnection from society. Therefore, the Senior Welfare Centers offer psychological quarantine programs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virus Blues such as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the case of Mok-Dong Silver Welfare-Culture Center, flower pots and bean sprouts are provided to older persons in order to release stress. The Center also distributes various kits for daily

activities including drawing and crafts to encourage older persons to perform fine motor activities and experience achievements and happiness. Activity results are posted on the Center's websites and shared with the community members.

However, the best way of providing emotional support for older persons is through direct contact with society and the same age group. Accordingly, the Senior Welfare Centers have been operating programs that prevent droplet infection by imposing a maximum limit of 10 participants in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Expansion of Non-Face-to-Face Services〉

The Senior Welfare Centers have been establishing a variety of non-face-to-face services to cope with the prolonged COVID-19 outbreak. The most prominent service is online courses. Existing leisure-welfare programs of the Centers, such as aerobics, yoga, singing and gymnastics classes are produced as lesson videos and posted through each Center's website and YouTube channels. Further, the Centers converted some popular local events into online events. Local events, such as Mothers' Day, Older Persons' Day, and community festivals were held virtually and broadcasted via YouTube. These programs also included live interviews of older persons to encourage communication among users. Lastly, the "Senior Book" project, which shares the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older persons with other generations, is actively carried out. By using an online video production method, the Centers conduct the "Senior Book" project to share various talents and know-how of older persons such as cooking, storytelling and calligraphy with other generations even amid the COVID-19 outbreak.

〈Enhancing Digital Accessibility〉

The Senior Welfare Centers have been offering smartphone-use trainings for interested older persons. As the service delivery system changed rapidly after the COVID-19 outbreak, inquiries and demand for smartphone-use trainings surged. Besides, the Centers also provide various training programs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use SNS (Social Network Services) and kiosks. Some of the older persons who completed the training stated, "Wherever I go, I don't have to hide anymore", and "I felt like a useless being before, but now, I do not". This shows the improved social adaptation and self-esteem of older persons through the training.

Moreover, the Senior Welfare Centers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access environment for older persons. In particular, to support the Internet environment of vulnerable households, the Mok-Dong Center signed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a local Internet company and is implementing a project that builds the Wi-Fi environment in vulnerable households at a price equal to one-third of the existing price.

〈Provision of Programs Using New Technology〉

In addition to social adaptation training that enhances the digital accessibility of older persons, new programs using digital technologies have been provided. Through wristwatch-type wearable equipment, the Centers check body mass, exercise status and sleep patterns of the elderly and provide customized health care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Virtual Reality (VR) technology is also used to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programs, such as travel, listening to music, movie and nature experience. Besides, the Centers provide sports and exercise programs by using motion recognition programs (Nintendo) to support the

health care of the elderly.

The Centers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ternet of Things (IoT)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AI robots are being a companion of older persons and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houses, and IoT devices which regularly check TV and electricity consumption and detect motion of the elderly are functioning as a safety confirmation measure. Furthermore, leisure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are provided through smartphone applications. The new programs using technology not only stimulates curiosity, but also fulfill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Response Directions and Future Tasks in the Post-COVID-19 Era

〈Korea Association of Senior Welfare Centers〉

The Korea Association of Senior Welfare Centers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concrete efforts to address the inequality experienced by older persons amid the COVID-19 crisis. First, the Association needs to establish a response manual for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national emergencie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as well as a preemptive response system for the care facilities and the vulnerable groups. Second, a plan to integrate the existing face-to-face based services with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I, IoT and wearabl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also satisfies the needs of the field.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the national support system through budget expansion and policy preparation for enhanc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the necessary environment (the Internet and smart devices) for the vulnerable groups. Fourth, the social role of older persons and income security should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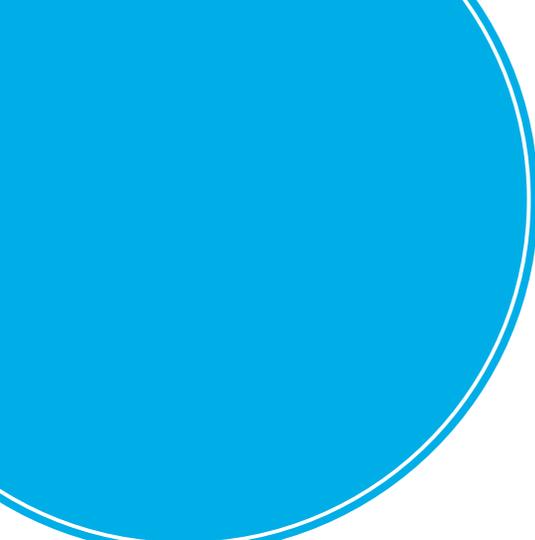
separated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based on a stable economic condition. Fifth, the educ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improve the digital capability and the sensitivity to human rights protection of key personnel in care systems. It is crucial to improve the labor conditions of caregiver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gether with the private sector to lead social change by continuously recommending these issues to the state and society.

〈Senior Welfare Centers〉

The Senior Welfare Centers, which meet the requirements of older persons most closely, intend to respond to the post-COVID-19 era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the Centers will support the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older persons. In particular, the Centers will provide a variety of experience-based social adaptation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 Internet accessibility within households. Second, the opportunity for active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in the contactless culture should be expanded. Recently, the main users of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YouTube, SNS, AI and VR, have been identified as those in their 50s or younger. If the access to information is improved, older persons will also be able to produce various online communication-type contents. In this case, the online environment will also change to a platform that is easier and more accessible to older persons. Third, the Senior Welfare Centers will focus on community-centered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reinforcement. The continuation of the non-face-to-face situation is highly likely which could increase inter-generational segregation and isolation of older persons. The Senior Welfare Centers will

help older persons to be integrated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continue diverse projects that promot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Last, the Senior Welfare Centers will make various attempts that adapt to major industries and social changes. It is not yet known how our society will evolve and what changes in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will be optimal. Thus, various attempts and experiences are required, which can lead to new trends that are customized to the future of social welfare for older persons.

COVID-19 has revealed the difficulties that older persons experience in society. The post-COVID-19 era should act as a time to build a new routine that is different from the old one. It is hoped that the shared interests and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the private sector, and the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the Senior Welfare Centers which exist to protect the daily lives of older persons, will lead to a better environment. We look forward to the new normal era where older persons could freely communicate and exchange with others in a stable environment.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기획연재

코로나19, 노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

Special Edition by ASEM Global Ageing Center

COVID-19 and Korea's Responses to Protect the Elderly

